



# 흉노 도성지 몽골 후레트 도브의 성격과 구조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Khureet Dov, Mongolia, Xiongnu capital

오재진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록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송상우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S.Eng.흐볼드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II. 흉노 성터 및 취락 유적의 분포와 흉노 도성의 성격

III. 후레트 도브의 현황과 조사내용

IV. 후레트 도브의 구조

V. 맺음말

# 국문 요약

한국과 몽골 공동 학술발굴조사단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흉노 도성 가운데 수도 궁전지로 추정되는 몽골 후레트 도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헤를렌(Kherlen) 강 서쪽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분포하고 있는 5개의 도성은 후레트 도브(Khureet dov)-흉노시대의 수도(單于庭), 테렐진 두르불진(Tereljyn durvuljin)-겨울, 부르힝 두르불진(Burkhyn durvuljin)-봄, 운두르 도브(Undur dov)-가을, 고아 도브(Gua dov)-여름 궁전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레트 도브의 문지와 담장은 판석의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대문과 그 양쪽에 작은 문이 있고, 그 양쪽에 기와지붕의 담장이 연결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성 내부에는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고, 각각의 건물지는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는 상부 구조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지붕에 사용되었을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부에 게르(ger)를 얹고, 게르 주위에 월대(月臺)를 돌린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건물지의 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계단지는 좌우에 기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 몽골, 흉노, 헤를렌 강, 후레트 도브, 흉노 도성

## I . 머리말

흉노 문화는 주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유라시아 초원의 고고학을 대표하는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흉노 고고학은 유라시아 동서를 잇는 북방 고고학의 출발로 인식되었다(강인욱 2010). 더불어 한국사에서도 흉노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한반도의 문화 형성에 북방 초원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인욱 2015).

몽골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1990년 몽골의 국가 체제가 변화하여 문호를 개방하자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몽골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흉노의 무덤뿐만 아니라 도성과 생산 유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나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몽골의 연구자들과 국제공동조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에렉첸 2014). 우리나라로 예외는 아니어서 몽골을 포함한 북방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한반도 문화 형성에 중원 농경 문화와 더불어 북방 초원 문화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동서문물연구원은 2016년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 연구소와 몽골 내 우리 민족의 원류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고대 문화유산에 대해 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한국 고대사 정체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몽골 문화유산 공동학술조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동서문물연구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조사단과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는 공동 학술발굴조사의 1단계(3개년도 사업)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바얀차간 솜의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공동 학술 발굴조사는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원형 적석의 흉노 무덤 2기를,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17년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원형 적석의 흉노 무덤 4기(배장묘 3기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원형 적석 흉노 무덤의 구조와 특징, 축조 시기와 계층 등 연구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3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18년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쇼허잉 암의 몽골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셔르걸징 볼쉬(개미형무덤) 1기, 히르기수르 1기, 판석묘 3기 등 모두 5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셔르걸징 볼쉬의 분포 범위를 확장시켰고, 히르기수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 매장 유구인 것을 밝혔으며, 판석묘

에서 말 순장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동서 문물연구원·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이러한 1단계의 조사성과에 힘입어 공동 학술발굴조사의 2단계는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 ‘후레트 도브’라는 흥노의 도성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마한문화연구원, 대한문화재연구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조사단과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가 2019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도성 내부의 중심 건물지 1기와 도성 북동쪽의 외부 부속 건물지 1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sup>1)</sup>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 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2023년에 비로소 재개할 수 있었고, 한국 측은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마한문화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가경문화재연구소로 새롭게 조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한국-몽골 조사단에서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를 끝으로 후레트 도브에 대한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중심 건물지의 서쪽 부분과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위치하는 건물지 4기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외에 도성 서쪽의 외부 부속 건물지 1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sup>2)</sup>

여기에서는 먼저 흥노 도성 유적 가운데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고 있는 흥노시대 5개의 도성<sup>3)</sup>에 대한 형태와 성격 등을 기준의 연구 성과를 통해 정리하고, 다음으로 5개의 도성 가운데 2019년과 2023년 조사를 진행한 후레트 도브의 중심 건물지와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조성된 건물지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9년도 후레트 도브에 대한 1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한국 조사단에는 조상기·오재진·김우현·안재필(중앙문화재연구원), 조근우·허재원(마한문화연구원), 이영철·김낙현(대한문화재연구원), 권오영·정재백(서울대학교), 김범철·이윤용(충북대학교)이 참여하였다.

2) 2023년도 후레트 도브에 대한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한국 조사단에는 조상기·오재진(중앙문화재연구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김창억·송상우(세종문화재연구원), 오규진·김상록(가경고고학연구소)이 참여하였다.

3) 도성(都城)은 왕이 거주하는 왕성과 백성들의 거주 지역을 아우르도록 쌓은 성곽이다. 중국에서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을 읍(邑)이라 하였으며, 읍이 국(國)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통합 권력의 상징인 종묘와 사직을 갖추고 있는 읍을 도(都)라 하였다. 따라서 도성은 백성의 거주 지역을 아우르는 외곽 성이 없더라도 왕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였으므로 왕도라 부르기도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856~858). 여기에서는 도성을 흥노 선우가 거주하였던 왕성(宮城)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헤를렌 강변에 위치하는 5개의 성을 설명할 때 ‘성터’와 ‘성벽’으로 표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성이 아닌 궁전지로 추정되므로 ‘도성’과 ‘남장’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Ⅱ. 흉노 성터 및 취락 유적의 분포와 흉노 도성의 성격

### 1. 흉노 성터 및 취락 유적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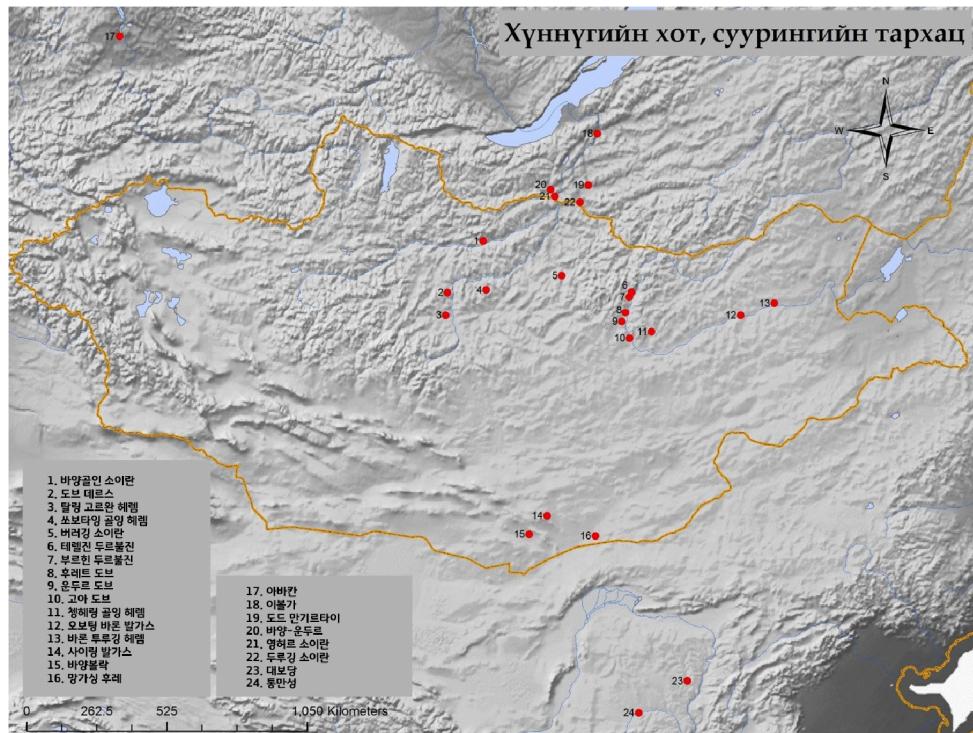
흉노(匈奴)는 기원전 4세기 말에 중국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원 전 209년 둑특선우(單于:최고의 우두머리)가 등장한 이후부터 세력이 강해져 동쪽의 동호(東胡), 서쪽의 월지(月氏)와 오손(烏孫), 서북쪽의 정령(丁零)과 견곤(堅昆) 등 주변의 유목집단들을 복속시켜 최초의 유목제국을 건설하였다. 그 영역은 남쪽으로는 만리장성,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동쪽으로는 한반도 북부, 서쪽으로는 서역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아우른다. 이로써 흉노는 중앙아시아의 초원 루트를 통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나라와 대결과 화친을 반복하다 내부 갈등으로 기원후 48년 남북으로 분열되고, 선비 등에 의해 와해되는 기원후 1세기 말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존속하였다(에렉센 2009; 양시은 · G.에렉센 2017; G.에렉센 · 양시은 2017).

흉노의 유적과 유물은 몽골을 중심으로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지역에 걸쳐 남아 있다. 흉노와 관련된 고고 유적은 대부분 매장 유적이지만, 기와와 전돌 등이 출토되는 성터(또는 취락)나 각종 공방지(제철유적, 가마터) 등의 정주와 관련된 유적도 있다.

먼저 몽골에서 확인된 흉노시대 성터와 취락 유적들은 고아 도브,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힝 두르불진, 윤두르 도브, 후레트 도브, 챙헤링 골잉 혜렘, 바론 투루깅 혜렘, 쏘보타잉 골잉 혜렘, 바얀볼라깅 도이르, 도브 데르스니 도이르, 망가싱 후레, 탈링 고르완 혜렘, 보로 소이란, 오보팅 바론 발가스, 에깅골에 있는 바양볼락, 음누고비 아이막에 있는 사이링 발가스, 자양허슈 유적 등 17기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몽골 국경 바깥쪽에 위치하는 흉노시대 성터와 취락 유적들은 러시아연방의 부리야트공화국에서 이볼가, 도레니(두루), 도레니-Ⅱ, 바양-윤두루, 도드 만기르타이, 영허르 유적이, 하카스공화국에서 아바칸 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내몽골자치구 어얼둬쓰 통만성과 산시성의 대보당 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흉노시대에 해당하는 성터 및 취락 유적은 현재까지 몽골, 러시아연방의 부리야트공화국과 하카스공화국, 중국의 내몽골자치구와 산시성 등에서 30기가 넘게 조사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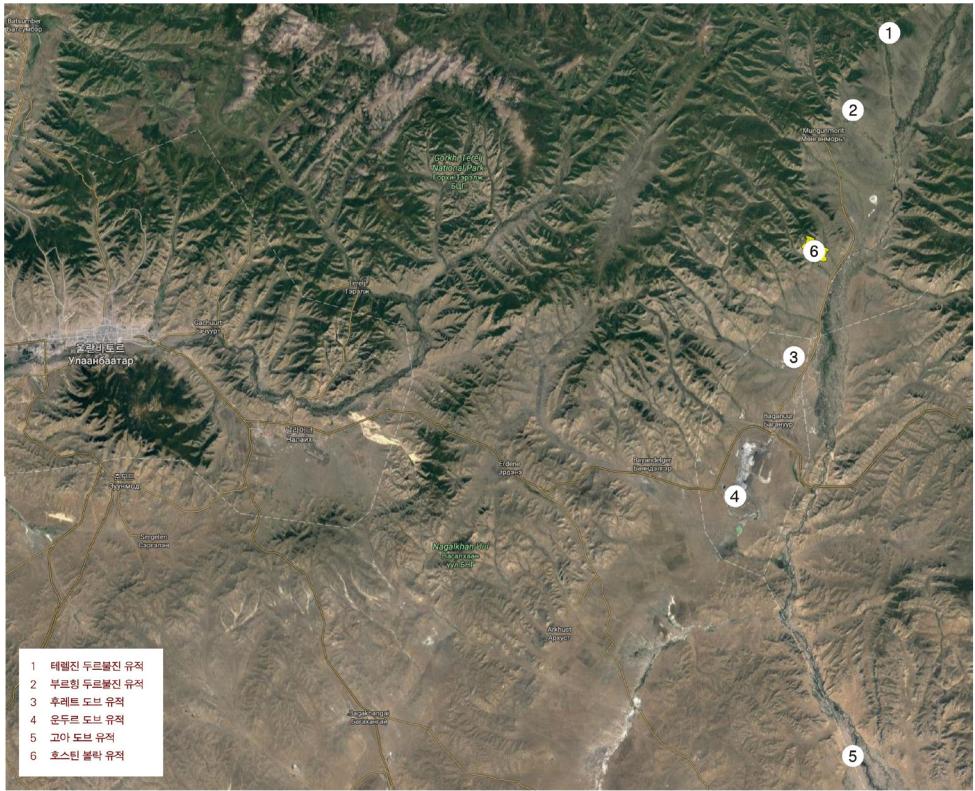
[그림 1] 흥노시대 도성과 취락 유적 분포 현황(G.에렉젠 2017: 185 도판 1)

## 2. 흥노 도성의 성격

흥노시대에 해당하는 성터 및 취락 유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유적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를렌(Kherlen) 강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흥노시대의 도성 5개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5개의 도성에 대한 구조와 출토유물, 성격 등을 그동안 진행된 연구 현황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G.에렉젠 2017: 185~204; G.에렉젠 · 양시은 2017: 78~107; 유롤-에르데네 2018: 72~105).

흥노시대에 해당하는 5개의 도성은 해를렌 강 중류지역의 서쪽 강변을 따라 20~40k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조성되어 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힝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의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sup>4)</sup> 이 5개의 도성은 모두 크고 작은 강변이나 호수 근처에 입지하고 있으며, 부르힝

4) '두르불진(durvuljin)'은 '네보'를, 도브(dov)는 '언덕(마운드)' 또는 '작은 산'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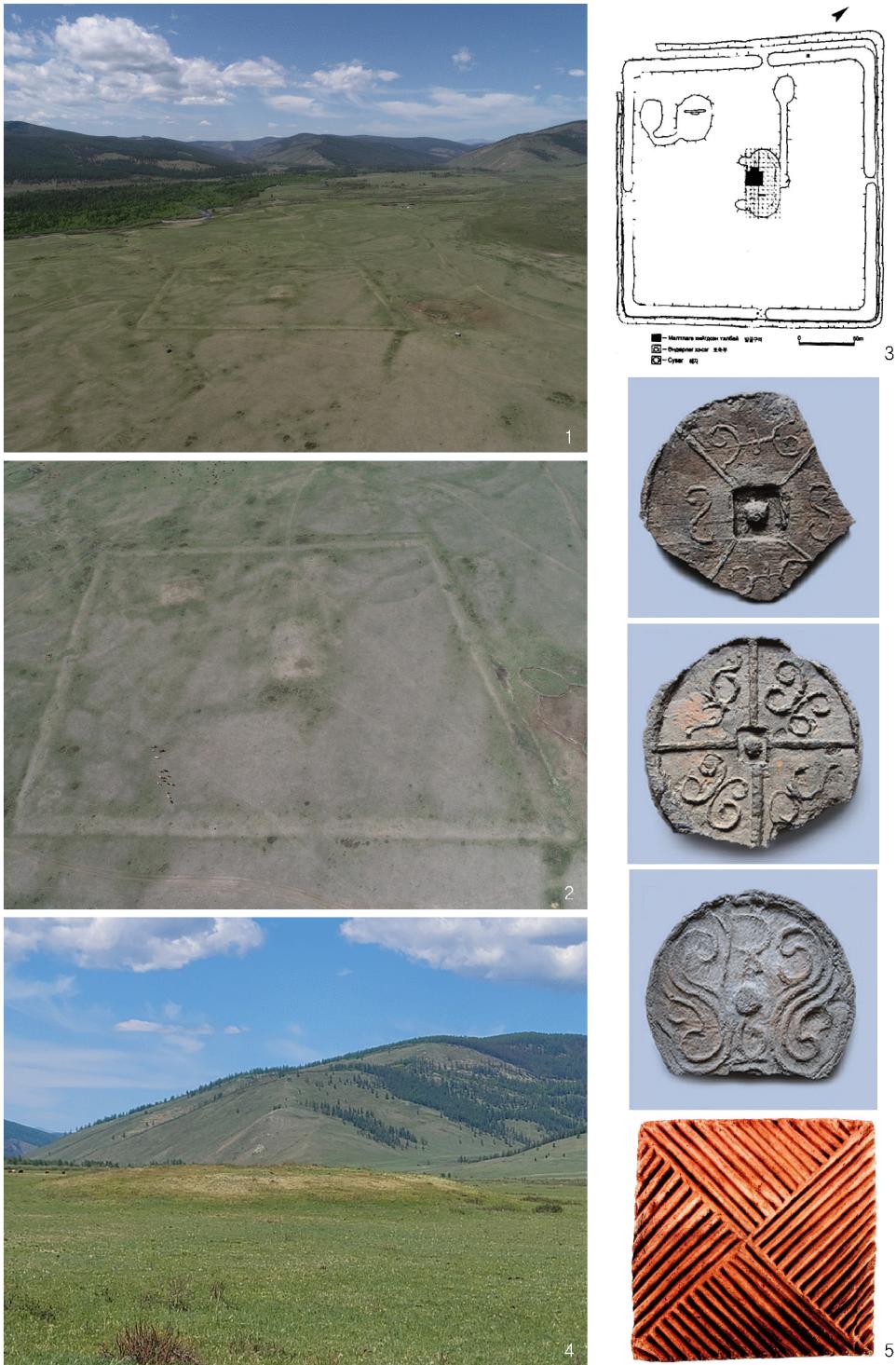
[그림 2] 헤를렌 강변 흉노 도성(G.에렉센·양시은 2017: 82~83 도판 73)

두르불진과 후레트 도브는 성벽 한쪽이 강물에 의해 파괴되었다(그림 2).<sup>5)</sup>

테렐진 두르불진(Tereljyn durvuljin)은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는 성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진흙 담장으로 이루어진 도성 유적이다. 이 유적은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의 헤를렌 강 지류인 테렐진의 하류 동쪽 강변에 입지하며, 북쪽에서 남동쪽까지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성벽은 방형이며, 담장 바깥에는 물을 끌어들인 수로(해자)로 추정되는 얕은 물길 흔적이 보인다. 진흙 담장의 규모는 235×235m이고, 현재 남아 있는 판축한 점토층은 높이 0.6~0.8m, 너비 10~12m 정도이고, 담장 중앙에는 각각 문지가 1기씩 설치되어 있다. 도성 중앙부에는 60×32m 규모의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대형 건물지가 있다<sup>6)</sup>. 소형 건물지는 대형 건물지에서 남서쪽으로 50m 정도 떨어져 2기, 대형 건물지에서 서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1기가 위

5)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강물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았지만, G.에렉센(2017: 197)은 강물을 일부러 도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흔적으로 판단하였다.

6) 폐를레는 이 대형(중심) 건물지를 두 개의 건물지로 추정하였으나, G.에렉센(2017: 192)은 1기로 판단하였다.



[그림 3] 테렐진 두르불진 1·2. 전경, 3. 평면도(윤형원 2018: 285 그림), 4. 대형 건물지, 5. 출토유물(G.에렉제ن · 양시은 2017: 89, 95 도판)

치하고 있다. 도로는 돌을 깔아 대형 건물지의 중앙부와 북서쪽을 연결하였다. 테렐진 두르불진은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회랑과 유사한 시설로 연결된 궁전지(건축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3). 특히 이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 가운데 흥노제국 선우 씨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탐가[印章]라는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은 노용 올 흥노 귀족 계층의 무덤에서 바닥면에 ‘S’자형 문양이 새겨진 칠이배를 비롯하여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양의 복사뼈, 암각화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흥노 선우 씨족의 상징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르힝 두르불진(Burkhyndurvuljin)은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의 부르힝 강 오른쪽 강변에 위치한다. 도성의 규모는  $180 \times 180\text{m}$ 이고, 내부에는  $30 \times 18\text{m}$ 와  $29 \times 28\text{m}$  규모의 건물지 2기가 있다(그림 4).



[그림 4] 부르힝 두르불진 1. 전경, 2. 건물지, 3. 평면도(G.에렉젠 · 양시온 2017: 82~83 도판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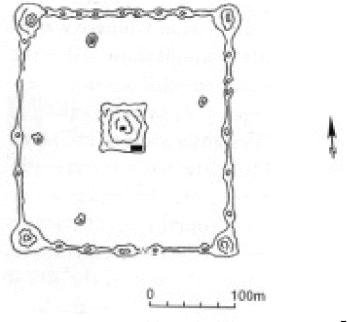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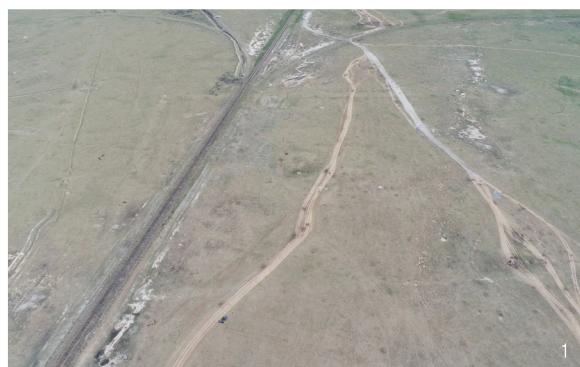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는 도성 가운데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후레트 도브(Khureet dov)는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바가노르구에서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적 중앙부와 주변은 러시아 군대의 야외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심하게 파괴되어 있고, 남쪽에 접하여 바른 바이들락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헤를렌 강에 합류한다.<sup>7)</sup> 도성의 규모는 5개의 도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420 \times 420\text{m}$  정도이다(그림 5).

운두르 도브(Undur dov)는 바가노르구에 속한 이흐 궁 호수와 바가 궁 호수 사이에 있는 아야가-샤나가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다. 1952년 폐를레가 조사할 당시 담장의 규모는 동쪽 292m, 서쪽 285m, 남쪽 285m, 북쪽 255m이고, 높이 0.3~0.6m, 너비 2~3m 정도이다. 담장 위에는 망루가 서쪽 3개, 동쪽 6개, 남쪽 5개, 북쪽 8개, 네 모서리에 각각 1개씩 있다. 도성 중앙부와 서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에 건물의 흔적을 확인하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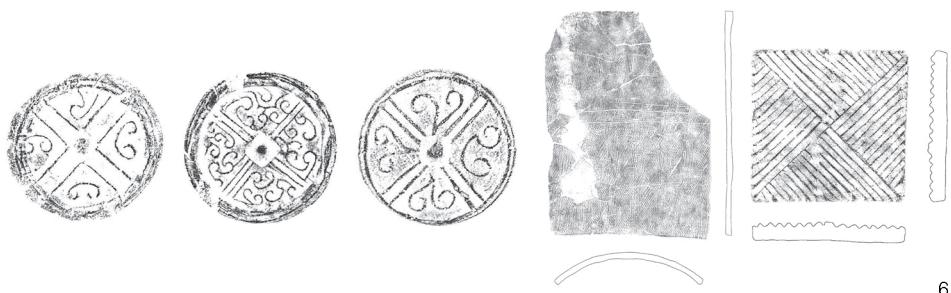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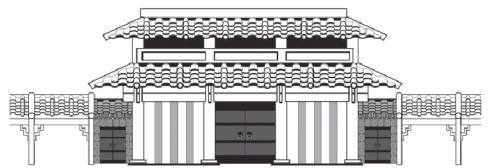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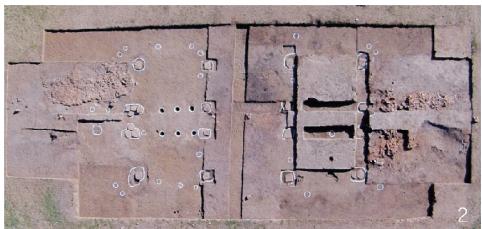


[그림 5] 후레트 도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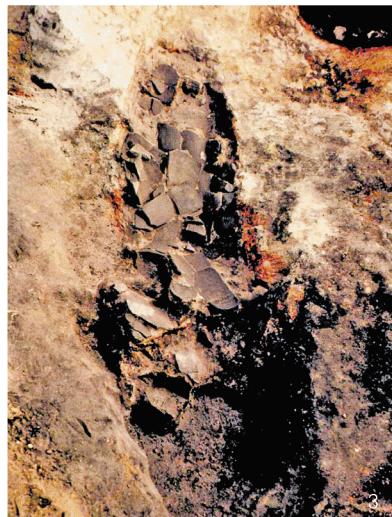


[그림 6] 운두르 도브 1. 전경, 2. 평면도(G.에렉전 · 양시은 2017: 82~83 도판 73)

7) 후레트 도브는 바른 바이들락 강의 북쪽 강변에 위치하는데, G.에렉전(2017: 197 표 1)은 '동쪽 강변'으로 방위를 잘못 파악한 듯하다.



[그림 7] 고아 도브 1. 전경, 2. 남문지, 3. 담장 동남쪽 모서리, 4. 유적 복원도, 5. 남문지 복원도 출토유물(2~5. G.에렉전 · 양시온 2017: 91~93 도판, 6. 국립중앙박물관 외 2017: 88, 92, 104, 164, 168 도면)



[그림 8] 호스틴 볼락 유적(G.에렉전 · 양시은 2017: 104~107 도판 재편집)

1. 전경, 2 · 3. 기와가마터, 4 · 5. 제철로, 6. 출토유물

고아 도브(Gua dov)는 해를렌 강변에 분포하는 도성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하는 유적으로 투브 아이막 바얀자르갈란 솜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방형 회랑은 동서 200(180?)m, 남북 180m이고, 회랑 중앙부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문지가 확인되었다. 대형(중앙) 건물지는 회랑 내부 북서쪽 모서리 부근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규모는  $40 \times 30$ m 정도이다. 소형 건물지는 대형 건물지 북쪽에 위치하며, 규모는  $25 \times 10$ m 정도이다. 회랑 바깥에는 2~3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연못은 회랑 남동쪽 모서리에 인공적으로 시설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고아 도브는 폐를레가 추정한 제사유적이 아니라 4면에 2층 대문이 설치된 방형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있는 궁전으로 추정하였으며, 더불어 기후와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여름 궁전지로 추정하였다(그림 7).

한편 해를렌 강변에 분포하고 있는 5개의 도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은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 호스틴 볼락이다. 호스틴 볼락(Khustyn bulag) 유적은 준 바이달락 강 동쪽의 구릉 사면에 입지하며,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에 해당하는 토기와 기와를 생산하면 가마터와 철을 제련하면 노가 조사되었다. 특히 이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와 벽전 등은 형태와 문양이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 후레트 도브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데, 호스틴 볼락 유적에서 생산된 기와 등을 해를렌 강을 이용하여 각 도성 유적으로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8).

1950년대에 발견된 5개의 도성은 일부 조사를 통해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 실생활에 사용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당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방형 전(장식용 벽돌, 벽전)이 발견된 점, 유적의 이름이 신화나 샤먼의 노래에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흥노시대의 제사 유적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5대의 성터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지로 흥노시대의 제사 유적이 아닌 최상위 계층의 궁전지와 같은 생활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방형 전(장식용 벽돌, 벽전) 역시 문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아랫부분에 부착하여 장식한 토제판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몽골제국시대에도 카한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수도인 하라호름(Kharakorum)에 머물렀고, 나머지 기간에는 하라호름의 북쪽과 남쪽에 30~70km 정도 떨어져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된 계절 궁전에서 생활하였다. 이와 같이 몽골제국시대 수도와 계절 궁전과의 배치는 해를렌 강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된 흥노시

대 5개 도성의 배치와 유사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의 흥노시대 도성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후레트 도브가 선우정(單于庭)<sup>8)</sup>으로 명명된 흥노시대의 수도로, 나머지 4개의 도성은 선우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거주하던 계절 궁전지 즉, 테렐진 두르불진은 겨울, 부르힝 두르불진은 봄, 운두르 도브는 가을, 고아 도브는 여름 궁전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1).<sup>9)</sup>

[표 1] 헤를렌 강변 흥노 성터 현황(G.에렉센 2017: 197 표 1 일부 수정)

연번	유적명	위치	도성 규모	유구	추정성격	조사현황
1	테렐진 두르불진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 테렐진 강 동안	235×235m	대형 건물지 1기 소형 건물지 3기 도로	겨울 궁전지	블라디미르초프(1925년), 페를레(1952년), 다닐로프 등(2007~2008년), 크라딘·에르덴볼드 등(2015년)
2	부르힝 두르불진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 부르힝 강 우안	180×180m	소형 건물지 2기	봄 궁전지	페를레(1952년)
3	후레트 도브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 바론 바이들락 강 북안	420×420m	중심 건물지 1기 서쪽 건물지 4기 외부 부속 건물지 추정 연못지(?)	수도	중앙문화재연구원·마한문화연구 원·대한문화재연구원·세종문화 재연구원·가경문화재연구소· 몽골 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2019년, 2023년)
4	운두르 도브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 이흐 궁 호수와 바가 궁 호수 사이	285×255m	대형 건물지 1기 소형 건물지 4기	가을 궁전지	블라디미르초프(1925년), 페를레(1952년)
5	고아 도브	투브 아이막 바얀자르갈란 솜, 헤를렌 강 동안, 차간 아랄	200(180?) ×180m	중앙 건물지 부속 건물지 외부 건물지 인공 연못	여름 궁전지	페를레(1952년), 국립중앙박물관· 몽골과학아카데미역사학고고학 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2013~2015년)

8)『사기』 흥노열전에 선우가 실면서 서로 모여서 회합을 가지던 장소로 세 군데가 언급된다. 선우정(單于庭)은 정월에 모이는 궁전으로 각 부족의 우두머리가 모이는 작은 모임을 여는 곳이고, 용성(龍城 또는 龍城)은 5월에 조상, 하늘과 땅,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말이 실찌는 가을에 큰 대회를 여는 대림(蹕林)은 그 이름으로 볼 때 건물이나 성이 아니라 회합을 가지는 숲속일 가능성이 크다(강인욱 2020).

9) 2020년 7월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약 470km 떨어진 아르항가이 아이막 울지트(Ulziit) 솜 하르가나트(Kaprahat) 성터에서 초기 흥노의 글자가 새겨진 와당이 출토되어 용성으로 규정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르가나트 성터는 방형의 성으로 규모가 외벽 550×550m, 내벽 250×210m이고, 내성 중심부에서 양쪽으로 궁궐지가 위치한다. 성의 남서쪽에는 대형 인공연못지가 확인되었다. 이 성은 흥노가 중국과의 오랜 접촉으로 그 유목국가의 성격이 변하기 전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선우의 위엄을 드높이며 나아가서 흥노의 장수들이 모였던 곳으로 기능했던 초기의 건물일 가능성이 크다(강인욱 2020). 아직 자세한 성과를 접할 수 없으며, 이 성에 대한 성격은 선우정과 용성의 비정에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또한 고아 도브에서 발견된 목탄과 가축의 뼈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1세기로 확인되었고, 테렐진 두르불진의 연대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흥노시대 5개의 도성은 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1세기 초에 흥노가 고비 사막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III. 후레트 도브의 현황과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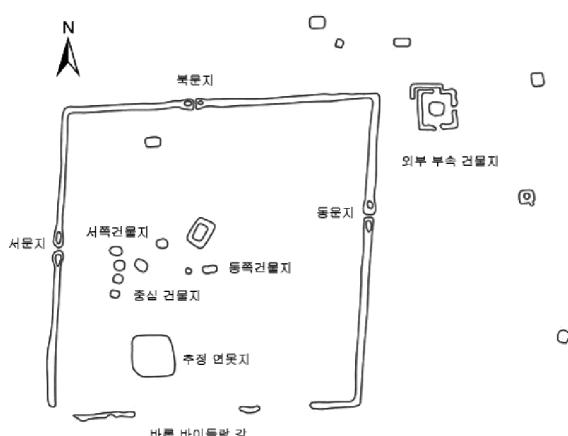
#### 1. 후레트 도브의 현황

후레트 도브(Khureet dov)는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다. ‘후레트(Khureet)’는 테두리를, ‘도브(dov)’는 언덕(마운드) 또는 작은 산을 뜻하는 것으로 후레트 도브란 테두리가 있는 언덕(마운드)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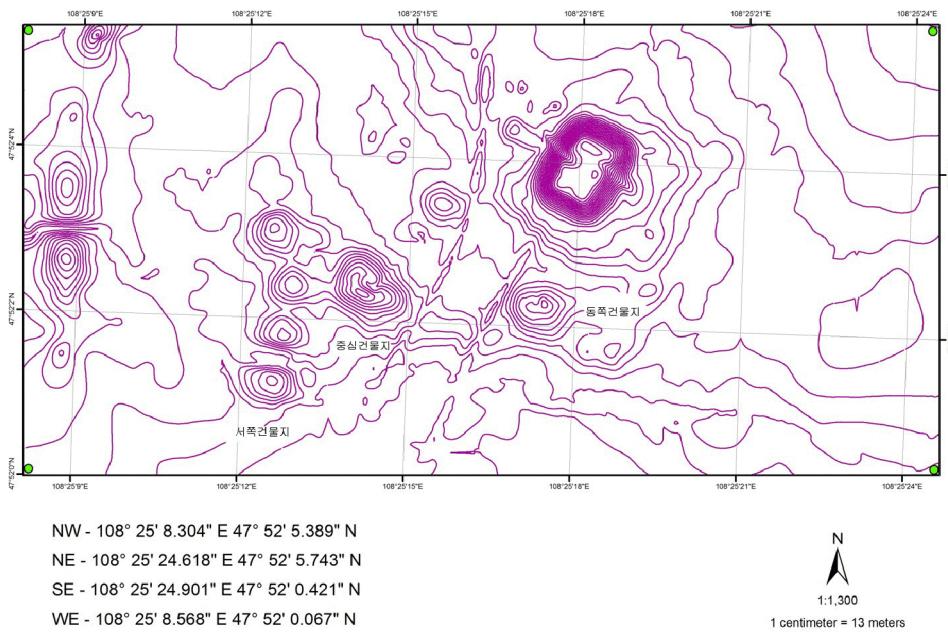
후레트 도브는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5개의 흥노 도성 가운데 흥노의 수도로 추정되는 도성터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러시아 군대의 야외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심하게 파괴되었다. 도성 남쪽 담장에 접하여 바른 바이들락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헤를렌 강에 합류하며, 북쪽에는 러시아 군대의 포대 진지가 자리하고 있다.

도성은 규모가  $420 \times 420\text{m}$

인 방형이며, 문지는 동·서·북쪽 담장 중앙부에 각각 1개씩 설치되었다. 도성 내부에는 서쪽으로 치우쳐 중심 건물지가 위치하며, 중심 건물지 서쪽에 건물지 4기, 동쪽에 건물지 1기, 북동쪽에 건물지 1기가 배치되어 있고, 남동쪽으로 치우쳐 추정 연못지 1기가 확인되었다. 도성 외부



[그림 9] 후레트 도브 현황도



[그림 10] 중심 건물지 주변 현황도

북동쪽과 동쪽, 서쪽에는 부속 건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그림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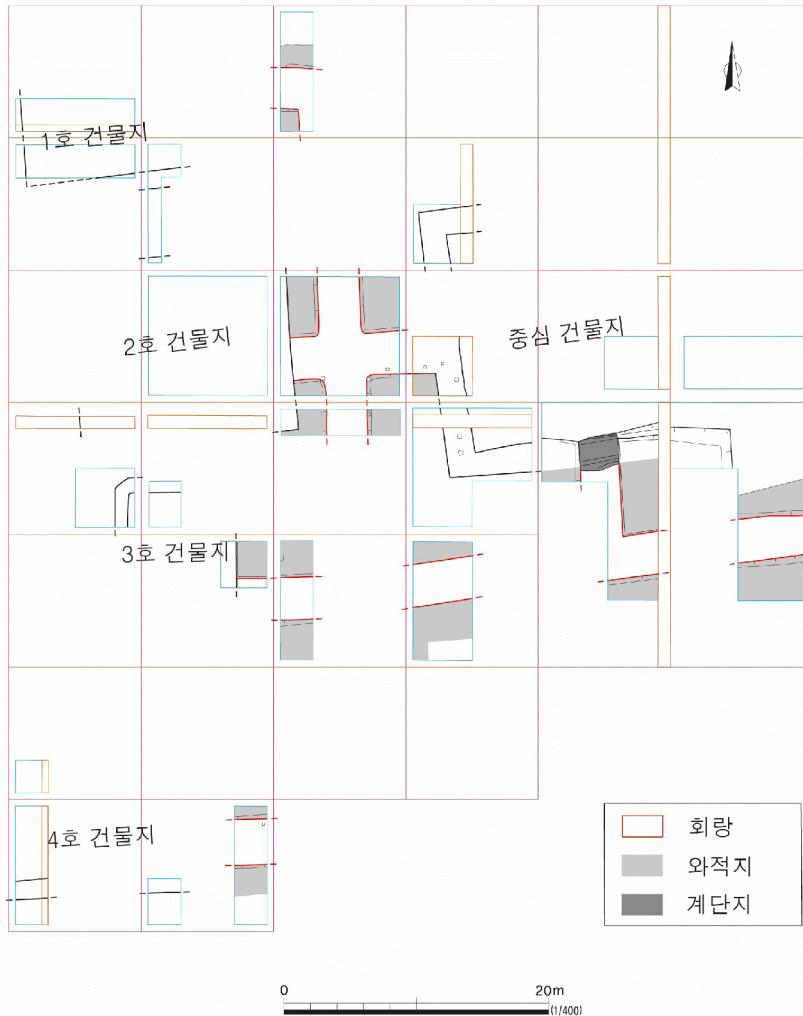
## 2. 후레트 도브의 조사내용

조사는 도성 서문지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약 2m 정도 떨어져 기준점을 정하였고, 이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10×10m 크기의 그리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더불어 유구의 범위와 층위를 파악하고자 남북방향으로 길이 50m, 너비 1m, 동서방향으로 길이 30m, 너비 1m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다. 중심 건물지의 남쪽과 서쪽에 각각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이 설치되어 있고, 남북 회랑의 서쪽에 4기의 서쪽 건물지가, 동서 회랑의 동쪽 끝부분에 1기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11).

### 1) 회랑(그림 12)

회랑(回廊)은 중심 건물지의 남쪽에 동서의 회랑이,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남북의



[그림 11] 중심 건물지 및 서쪽 건물지 배치도

회랑이 설치되어 있다. 남북 회랑은 서쪽에 4기의 서쪽 건물지가 연결되어 있고, 동서 회랑의 동쪽 끝부분의 북쪽에 동쪽 건물지 1기가 위치하고 있다.

회랑은 회백색 점토를 수평으로 여러 겹 다져 조성하였으며, 회랑 좌우에는 회랑 지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막새, 암키와, 수키와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남북 회랑에는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 \times 20\text{cm}$  정도 크기의 각재가 일부 확인되었다. 동서 회랑은 현재 길이 32m 60cm 정도가 확인되었으나 동쪽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고, 너비 320cm, 높이 60cm 정도이다. 남북 회랑은 길이 60m 40cm, 너비 300~305cm 정도이다.



[그림 12] 1·2. 동서 회랑, 3·4. 남북 회랑

## 2) 중심 건물지(그림 13)

중심 건물지는 도성 내부 중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데, 주변보다 최고 80cm 정도 높이 솟아있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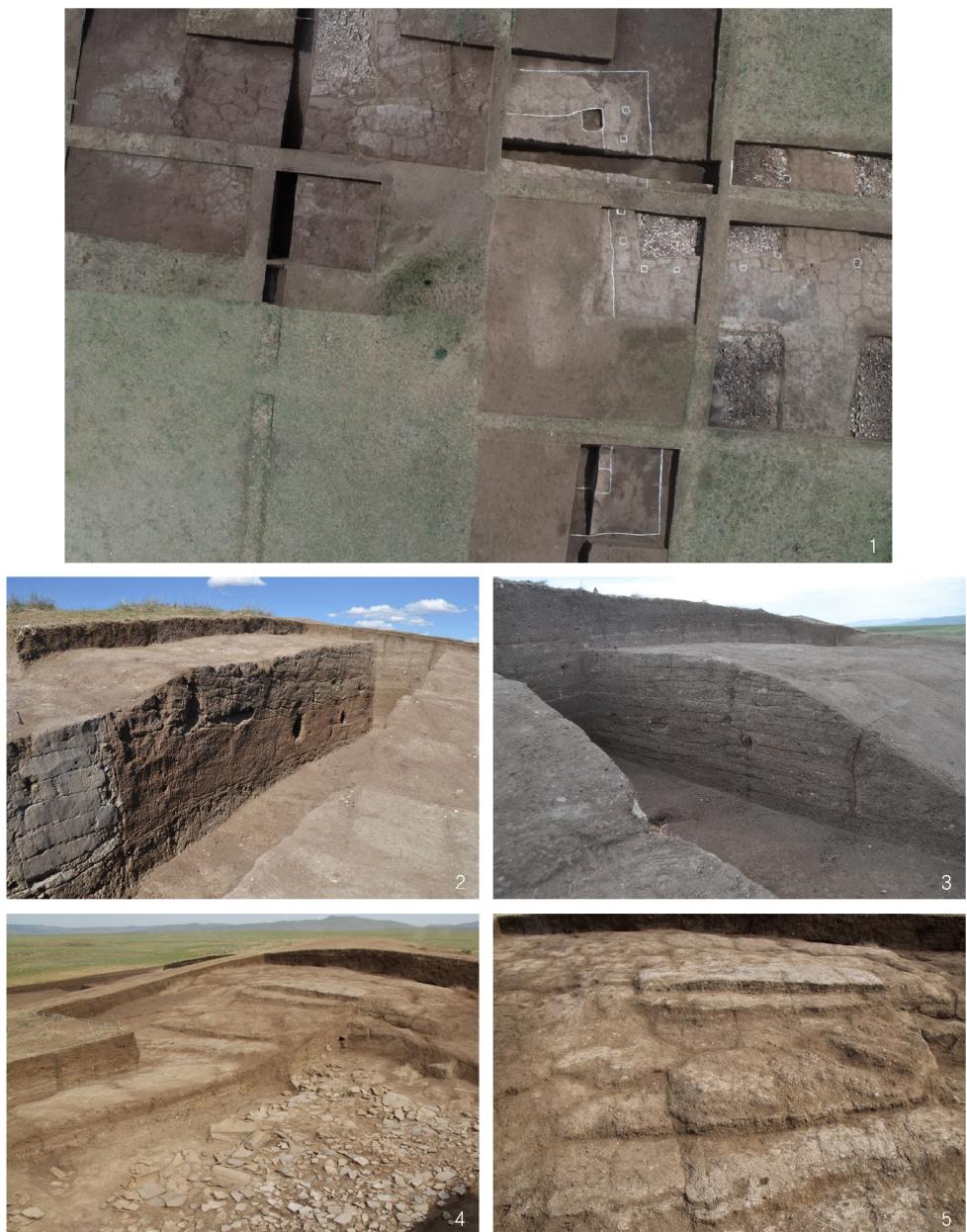
중심 건물지는 남쪽 중앙부와 서쪽 중앙부를 출입구로 사용한 회랑이 설치된 형태로 건물지 외부에 월대(月臺)가 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서쪽 월대에는 난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와 세로가 30cm 정도인 각재로 된 기둥 구멍이 120cm 정도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평면은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남북 20m 30cm, 동서 21m 60cm 정도 확인되었으며, 월대는 208~220cm 정도이다.

건물지의 대지는 먼저 월대 부분을 길이 20~90cm, 두께 10cm 정도의 점토 블록을 사용하여 쌓은 후 그 안쪽으로 색깔과 점성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였다. 점토 블록은 최대 6단 정도가 남아 있고, 수평으로 성토한 사질점토층은 최대 12층 정도 확인되었다.

남쪽 중앙부의 회랑은 주 출입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서 회랑에서 북쪽으로 이어져 계단지와 연결되었고, 규모는 길이 580cm, 너비 295cm 정도이다.

보조 출입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 중앙부에 설치된 회랑은 동쪽으로 남북 회랑과 연결되었고, 규모는 길이 520cm, 너비 295cm 정도이다.

계단지는 건물지 남쪽 중앙부에 위치하며, 주 출입구로 사용된 남쪽 중앙부의 회랑 북쪽에 연결되었다. 계단지는 파괴가 심하나 회색 점토를 다져 디딤판을 5단으로



[그림 13] 중심 건물지 1. 전경, 2 · 3. 대지조성상태, 4 · 5. 계단지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디딤판은 동서 295cm, 높이 11~14cm 정도이다.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서쪽 중앙부의 회랑, 계단지 양쪽에는 기와가 쌓여 있으나, 건물지 내부와 외부에는 기와가 확인되지 않았다.

### 3) 서쪽 건물지

서쪽 건물지는 도성 내부 중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남북방향으로 모두 4기가 배치되어 있다. 주변보다 약 40cm 정도 높이 솟아있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다.

서쪽 건물지는 동쪽에 설치된 남북 회랑의 서쪽에 연결된 형태로 모두 4기가 확인되었고, 2호 건물지를 제외한 3기는 건물지 외부에 월대가 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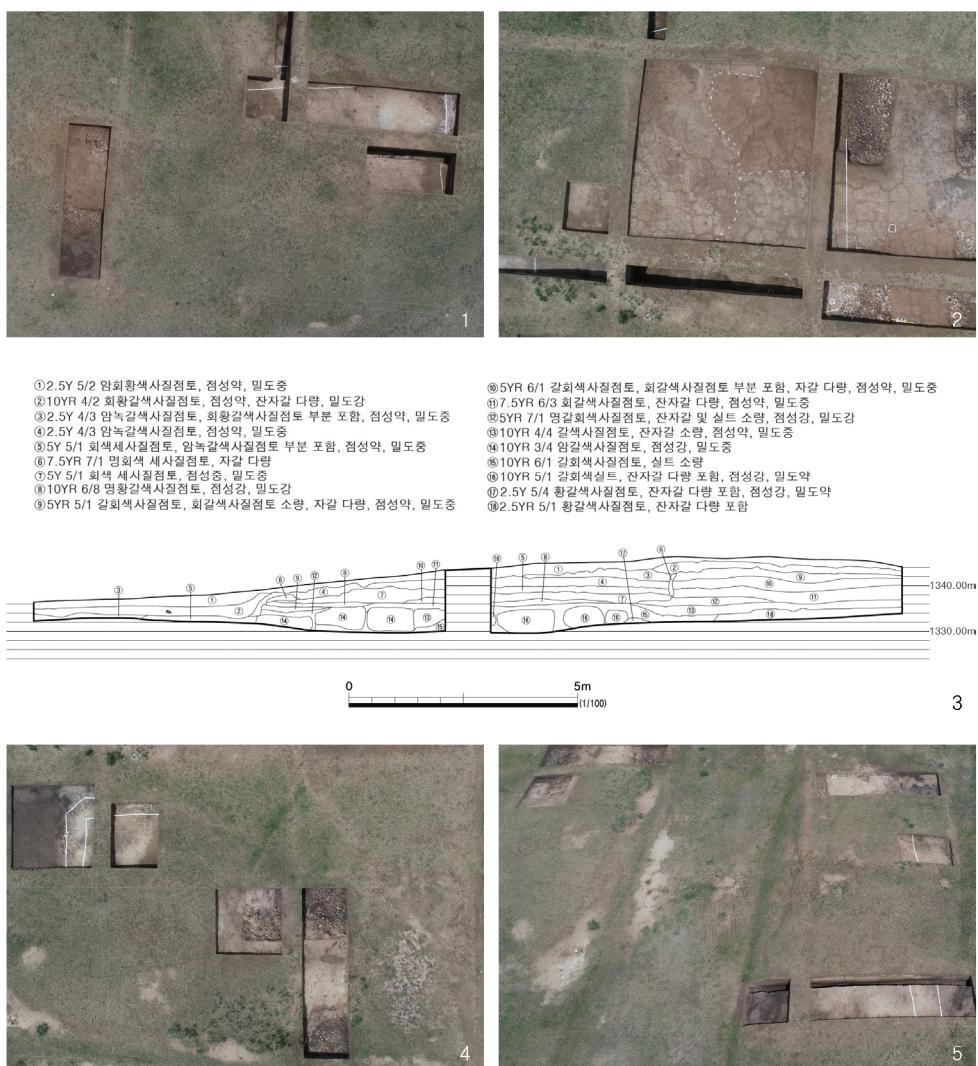
1호 건물지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남북 회랑의 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꺾여 건물지에 연결되었다. 건물지의 평면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170cm, 남북 현재 670cm 정도가 확인되었고, 월대의 너비는 120cm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현재 길이 200cm 정도가 확인되었고, 너비는 312cm 정도이다(그림 14-1).

2호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와 달리 월대가 확인되지 않았고, 건물지의 평면은 방형이다. 2호 건물지 동쪽은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과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설치된 회랑이 중간에 남북 회랑을 사이에 두고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615cm, 남북 1,425cm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길이 220cm, 너비 320cm 정도이다. 2호 건물지는 그리드의 평면에서 볼 때 서쪽과 북동쪽, 남동쪽의 사질점토가 점성과 색깔 등이 달라 세 부분으로 구획을 나누어 대지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2호 건물지 남쪽에 설치된 트렌치에 나타난 충위로 볼 때 중간 부분의 명회색 세사질점토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구획을 나누어 대지를 조성하였는데, 평면에서 확인된 구획선과 일치한다. 트렌치에서 보이는 대지의 조성은 동쪽이 기반층 상부에 점성과 색깔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4~5겹 정도 수평으로 성토하였지만, 기반층이 동쪽보다 낮은 서쪽은 먼저 점토 덩어리를 기반층 위에 놓은 뒤 그 상부에 점성과 색깔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4겹 정도 수평으로 성토하였다(그림 14-2·3).

3호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평면은 북서모서리가 빗

변으로 처리된 상태로 확인되어 평면은 8각형으로 추정된다. 남북 회랑에서 서쪽으로 꺾여 건물지에 연결된 회랑은 동서 회랑과 일직선상으로 이어져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920cm, 남북 현재 828cm 정도가 확인되었고, 월대의 너비는 94~108cm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길이 590cm 정도가 확인되었고, 너비는 324cm 정도이다(그림 14-4).

4호 건물지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군사 도로에 의해 북쪽이 유실되었다. 건물지의 평면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현재 1,300cm, 남



[그림 14] 서쪽 건물지 1. 1호 건물지, 2·3. 2호 건물지, 4. 3호 건물지, 5. 4호 건물지

북 잔존 940cm 정도이고, 월대의 너비는 150cm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현재 길이 300cm 정도가 확인되었고, 너비는 345cm 정도이다(그림 14-5).

## IV. 후레트 도브의 구조

여기에서는 고아 도브의 담장 및 문지에 대한 조사 성과와 후레트 도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레트 도브의 문지 및 담장과 중심 건물지에 대한 구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존에 성벽으로 불리웠던 담장은 바닥의 점토층, 점토층 좌우에 기와와 기둥 구멍으로 볼 때 점토를 다져 바닥을 만들고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지는 넓게 노출된 와전류와 그 내부에 문지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점토층이 확인되었고, 그 하부에 정면 3칸과 측면 3칸의 초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판석을 사용한 초석이 구덩이 안에 놓여 있었다. 문지는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중앙의 대문과 다시 양쪽에 소형 문이 있었던 구조로 추정된다(오세연 2017: 180~184; 에렉젠 2017: 187~191). 후레트 도브의 담장과 문지는 [그림 15]와 같이 고아 도브의 것과 유사한 판석의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대문과 그 양쪽에 작은 문이 있는 삼문(三門)과 그 양쪽에 기와지붕의 담장이 연결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조의 문과 담장은 몽골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

도성 내부에는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다. 중심 건물지의 남쪽과 서쪽에 각각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이 설치되어 있고, 남북 회랑의 서쪽에 4기의 서쪽 건물지가, 동서



[그림 15] 고아 도브 문지 및 담장 복원도(G.에렉젠 · 양시은 2017: 92 삽도 83)

회랑의 동쪽 끝부분에 1기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16).

다음으로 중심 건물지를 비롯한 서쪽 건물지의 대지<sup>10)</sup>를 조성하는 방식은 중심 건물지와 2호 서쪽 건물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심 건물지는 월대 부분에 점토 블록을 사용하여 쌓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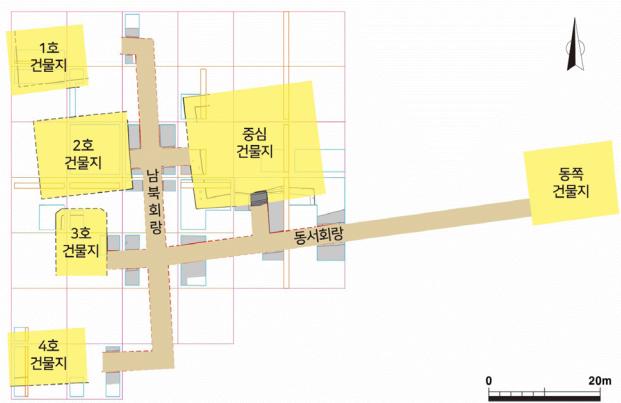
그 안쪽으로 색깔과 점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였다.

2호 건물지는 기반층이 동쪽보다 낮은 서쪽이 먼저 점토 데어리를 기반층 위에 놓은 뒤 그 상부에 점성과 색깔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였다. 따라서 중심 건물지와 2호 건물지를 비롯한 후레트 도브 건물지는 수평으로 성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건물지에서는 월대, 출입시설인 회랑과 계단지가, 서쪽 건물지에서는 월대와 출입시설인 회랑이 확인되었으나, 적심을 비롯한 초석 및 기둥 구멍(柱穴)과 기둥으로 사용되었을 목재 등 건물지의 상부 구조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계단지를 포함한 회랑 좌우에는 지붕에 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건물지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는 기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레트 도브의 건물지는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부에 게르(ger)를 얹고, 게르 주위에 나무 기둥으로 된 난간이 있는 월대를 돌린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중심 건물지의 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계단지



[그림 16] 후레트 도브 건물지 모식도

10) '대지'는 건축물을 조성하기에 앞서 건물이 입지할 지역을 절토나 삭토 혹은 판축이나 성토다짐 등으로 조성한 공간적 범위를 대지라 한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은 정지공법과 축토공법으로 구분되며, 축토공법은 판축공법과 성토다짐공법으로 세분되고, 이 중 성토다짐공법은 축토된 토양의 경사도에 따라 수평축토와 경사축토로 다시 나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지 조성토를 수평에 가깝게 축토한 수평축토의 대지 조성으로, 평지나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에 대지를 조성할 때 주로 실시하는 토목공법이다(조원창 2009: 25~39, 2012:19~28, 2018:25~60).

는 좌우에 목조 가구에 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가 쌓여 있다. 이것은 시기를 달리하지만 창덕궁 선정전의 복도각(複道閣, 그림 17)처럼 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7] 창덕궁 선정전 복도각

## V. 맷음말

한국과 몽골 공동 학술발굴조사단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흥노 도성 가운데 수도 궁전지로 추정되는 몽골 후레트 도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를렌 강 서쪽에는 북쪽에서부터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힝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의 순으로 5개의 흥노 도성이 각각 20~40k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5개의 도성은 그동안 흥노시대의 제사 유적으로 추정된 바 있었지만, 최근 몽골제국시대 수도와 계절 궁전과의 배치 및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지로 최상위 계층의 궁전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5개의 흥노 시대 도성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후레트 도브가 선우정으로 명명된 흥노시대의 수도로, 나머지 4개의 도성은 선우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거주 하던 계절 궁전지 즉, 테렐진 두르불진-겨울, 부르힝 두르불진-봄, 운두르 도브-가을, 고아 도브-여름 궁전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레트 도브의 문지와 담장은 판석의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2층의 기와 지붕을 올린 대문과 그 양쪽에 작은 문이 있고, 그 양쪽에 기와지붕의 담장이 연결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성 내부에는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고, 각각의 건물지는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

으로 연결되었다.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는 상부 구조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지붕에 사용되었을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부에 계르를 얹고, 계르 주위에 난간이 있는 월대를 돌린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건물지의 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계단지는 좌우에 기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후레트 도브에 대한 정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건물의 형태나 구조 등이 더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며, 헤를렌 강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흉노시대 5개의 도성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2020년 조사된 몽골 하르가나트 성터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유물에 대한 분석과 가축의 뼈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통해 후레트 도브의 조성연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본고의 Ⅱ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2020년 11월 개최한 〈2020 Asian Archaeology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2. 흉노 도성 유적의 연구현황'이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4. 30 | 심사완료일 2024. 5. 23 | 게재확정일 2024. 5. 31

## 참고문헌

- 강인욱, 2010, 「紀元前4~紀元1세기의 考古學 資料로 본 匈奴와 동아시아-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 구축을  
겸하여-」, 『중앙아시아연구』15.
- \_\_\_\_\_, 2015, 『유라시아 역사 기행-한반도에서 시베리아까지, 5천 년의 초원 문명을 걷다』, 민음사.
- \_\_\_\_\_, 2020, 「고고학이 밝혀내는 흉노의 용성과 선우정」,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동향』.
-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몽골 국립박물관, 2017, 『몽골 고아 도  
브 흉노 유적』,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7책.
- 에렉센, 2014, 「몽골 흉노유적의 국제공동조사사업과 성과」,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  
대회 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7,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흉노 도성들의 특징과 용도」, 『몽골 고아 도브 흉노 유적』, 대한민국 국  
립중앙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몽골 국립박물관.
- 오세연, 2017, 「고아 도브 유적의 구조와 성격」, 『몽골 고아 도브 흉노 유적』,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몽골 국립박물관.
- 오재진 외, 2020, 「몽골 후레트 도브 흉노 도성지 발굴조사」, 『2020 Asian Archaeology 학술심포지엄』, 국립  
문화재연구소.
- 유를-에르데네, 2018, 「흉노의 도시유적」, 『흉노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42, (재)중앙문화재  
연구원 역음.
- 윤형원, 2018, 「흉노인의 의식주」, 『흉노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42,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역음.
- 조원창, 2009, 「백제 웅진기 이후 대지조성 공법의 연구」, 『건축역사연구』제18권 5호 통권66호, 한국건축역사  
학회.
- \_\_\_\_\_, 2012, 『기와건물지의 조사와 해석』, 서경문화사.
- \_\_\_\_\_, 2018, 『건축유적의 발굴과 해석』, 서경문화사.
- 중앙문화재연구원·동서문물연구원·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몽골의 무덤』, 중앙문화재연  
구원 학술총서44.
- G.에렉센·양시은, 2017,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36·동서문물연구원 학술총서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Khureet Dov, Mongolia, Xiongnu capital

Oh, Jae-Jin(Special Researcher,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im, Sang-Lok(Researcher, Gakyung Institute of Archaeology)

Song, Sang-Woo(Researcher, Sejong Research of Cultural Heritage)

Enkhbold Sanjperlee(Researcher, Institute of Archae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Korea-Mongolia Scientific Excavation Research Group investigated Khureet Dov, Mongolia, which is presumed to be the capital palace site among the five Xiongnu capital cities, twice in 2019 and 2023.

The five cities, located with regular intervals to the west of the Kherlen River, are presumed to have served the following functions respectively: Khureet Dov—the capital in the Xiongnu period, Tereljin Durvuljin-winter, Burkhyن Durvuljin-spring, Undur Dov-autumn, and Gua Dov-summer palace.

The structure of the gates and walls of Khureet Dov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nstructed with a main gate featuring a two-story tiled roof, supported by wooden pillars erected on a foundation of slab stone, with small gates on both sides, and walls with tiled roofs on both sides were connected.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fortress includes a central building area and a western building area clustered together, while the eastern building area is slightly separated. Each building area was connected by east-west and north-south corridors. The absence of facilities associated with the upper structure and the absence of excavated tiles used for roofing in the central and western building area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y were shaping the ground with

the horizontal embankment method before placing a ger(traditional Mongolian tent) on top and building a Woldae(月臺) around it. The tiles are piled up on both sides of the southern central corridor and stair site, which are presumed to be the main entrance facilities of the central building site, suggesting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ts structure was made of wooden constructions with roof tiles on top.

**Key words : Mongolia, Xiongnu, Kherlen Rive, Khureet Dov, Xiongnu Capital**